

INSTRUCTION · 영월

옥동초 농촌유학 가족과의 만남 자연 속 체험학습으로 훌쩍 큰 아이들 지역과 교감하며 행복 추억 남긴 학부모들

서울 사는 학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영월에 왔다.
농촌유학생 모집공고를 본 뒤 한 달 만에 집을 꾸려 영월로 온 학부모들은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며 유학생 생활에 만족감을 표했다.
영월군 김삿갓면 옥동초교에 유학 온 이들 중 다섯 가족을 만나봤다.

영월의 자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수업 마친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운동장으로 달려 나왔다. 평소에는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가지만 인터뷰를 위해 학교에 온 부모들을 발견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안기기 바빴다. 부모들과 잠깐의 인사를 나눈 아이들은 축구공을 가져와 한바탕 축구를 하더니, 이내 솔레잡기로 종목을 바꿨다. 한참을 뛰어다녀서인지 아이들의 볼이 금세 빨개졌다. 운동장 위로 아이들 웃음소리와 친구 부르는 소리, 힘차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사탕 잃어버렸다며 우는 아이 목소리가 겹쳤다.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서울에 살았던 젊은 부모들은 2023년 2학기에 '가족체류형'으로 농촌유학을 왔다. 아이들과 부모 중 1명이 같이 머물며 농촌유학을 하는 형태다. 대부분 엄마들이 동행했는데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바로 2학년 시온이네다. 나승권(36), 최지혜(40)씨 부부는 옥동초 농촌유학 가구 중 일곱 가구가 머무는 예밀포도마을에 살고 있다.

"시온이가 더 어렸을 때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는데 마땅한 기회가 없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답이 와서 아빠인 저도 따라왔습니다."

나씨 부부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시온이를 위해 농촌유학을 결정했다. 그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는 부부는 신기하게도 영월에 온 후 아이 상태가 완화되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시온이가 아토피로 아파할 때마다 저희 마음도 편치 않았죠. 대신 아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영월에 와서 3주쯤 지났을까, 조금씩 차도가 보이더라고요. 몸을 긁는 횟수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어요. 영월의 깨끗한 공기와 자연이 치료약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친구들과 뛰어놀며 건강해진 시온이를 보면서 부부는 영월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발 달는 모든 곳이 자연학습의 장

대치동 엄마였던 유상아(37)씨는 5학년 주희와 2학년 소희가 위해서 영월행을 택했다. 주희가 학교에서 농촌유학 신청서를 들고 온 것이 계기였다. 아이들 생각에 동의한 엄마 유씨는 학교를 결정하기 전 직접 아이들과 강원도 투어를 하며 여러 학교를 둘러봤다.

"아이들이 곤충 채집이나 숲 체험, 별 보러 가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서울에서는 따로 천문대를 가거나 숲체험을 하러 갔는데 영월에 오니 문밖을 나서면 별이 있고, 매일 곤충 채집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숲체험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제 정말 좋대요."

농촌유학을 결정하고 주변에 알렸을 때, 유씨는 5학년 아이를 시골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섞인 말을 많이 들었다. 유씨는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농촌유학 온 다른 부모들 생각과도 결을 같이 했다.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언제든 학습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주희랑 소회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키워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학습적인면에서도 다채로운 수업을 집중해 들을 수 있어 아이들의 유학생활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워킹맘인 한보경(36)씨는 1학년 수아, 유치원생 아인(6)이와 재이(5), 이렇게 삼남매를 데리고 왔다. 스마트가정통신문 ‘e-알리미’에서 읽지 않은 내용들을 지워나가던 중 마침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송한 농촌유학 안내가 떴다. 기막힌 타이밍이었다. 세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자연의 품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서울에 혼자 두고 와야 하는 남편 걱정이 앞섰다.

“학교랑 숙소 탐방할 때 남편이 동행했어요. 그전까지는 잠깐이기는 하지만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과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 같은 게 있었는데 탐방 후에는 남편도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뛰어놀면 정말 좋겠다며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적응을 빨리했다. 마치 영월에서 오래 산 아이들처럼 학교생활에도 금방 적응했고, 친구들과도 빨리 친해졌다. 틈날 때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게 일이었다고, 숙소에 와서도 친구들과 더 놀고 싶어서 해야 할 숙제와 공부를 스스로 빨리 마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부모들이 입을 모았다.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농촌유학

‘건강한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육아 가치관이었다는 주혜선(36)씨는 1학년 해솔이와 일곱 살 해준이 형제를 데리고 유학길에 올랐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주씨는 일찌감치 시골 학교에 관심을 두었다. 해솔이를 위해 영월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에 알아보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그렇게 해솔이는 서울 학교에 입학했다. 1학년 1학기 영어, 축구, 미술 학원을 다니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주씨는 농촌유학 모집 안내를 보고 ‘이거다’ 싶었다.

“아이에게 계속 이런 삶의 굴레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아서인지 내가 사는 곳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모들은 농촌유학을 ‘기회’로 여겼다.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 속에서 넘어지고, 부딪치며 스스로 배우고 느끼는 과정 가운데 단단해지리라 믿었다. 6개월의 농촌유학생활 중 3개월이 지난 지금, 열심히 뛰어놀아서인지 뒤통아서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 아우성이라는 아이들은 그만큼 잠도 잘 자서 키가 더 컸다. 태블릿과 휴대폰, 게임기에 의



존했던 시간들을 친구들과 노는 것으로 채웠다.

영월의 자연을 정말 좋아해 해마다 영월로 여행을 왔다는 박은희(47)씨는 옥동초 주변을 휘감아 도는 옥동천에 일찌감치 반했다. 옥동천에서 1학년 아들 민재와 다슬기를 잡을 때까지 해도 영월로 유학 올 줄은 생각지 못했다.

“남편을 먼저 올려보내고 펜션에 머물 낱을 연장할 정도로 영월에 머무는 나날, 모두가 좋았어요. 어느 날 지인을 만나 민재를 조용한 시골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했더니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원을 했죠. 옥동초에 꼭 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한바탕 축구를 하고 땀 흘리며 뛰어온 민재에게 영월로 유학 와서 좋으냐고 물었다. 민재의 답은 “좋으면서 힘들어요”였다. 힘들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어진 민재의 답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났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학교가 너무 넓어서 힘들어요.(웃음) 운동장에서 뛰어 놀아야죠. 학교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죠. 여기저기 돌아다닐 곳이 많아서 좋으면서 힘들어요.”

민재가 다시 아이들 무리로 돌아간 뒤 박씨가 낸지 사진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 속에는 민재가 ‘영월’로 지은 2행시가 담겨 있었다.

“영: 영월은 청춘이네, 월: 월래 영월은 좋아!”

엄마가 아이에게 붙여온 기분 좋은 변화를 느끼듯, 아이도 엄마가 영월에 와서 여유를 찾고, 행복해 하는 것을 느낀 모양이다. 민재의 2행시에는 농촌유학의 행복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농촌유학 부모들은 영월에 와서 아이들도 행복하지만 자신들이 더 행복하다고 했다. 사람 사는 맛이 있고, 정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식재료마트나 시장을 따로 가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고추며, 배추며, 열무 같은 농산물에 풍성한 한 끼 식사가 차려진다. 오가는 길,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는 것이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됐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난 뒤에 더 바쁘다는 부모들은 원예, 도자기, 꽃차, 필라테스 등 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기며 영월에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박은희씨와 유상아씨는 일손이 모자란 예밀포도마을의 포도 수확 철에 농촌일손돕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을 주민들과도 소통했다. 주민들이 탄 포도를 포장해 택배상자에 넣는 일을 하며 “어디서 왔나” “영월에 뭐 하러 왔나”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포도농장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달콤한 추억이 됐다. 농촌유학생 부모들은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 농촌유학을 오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등교 후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래야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유학생활이 가능하다는 소중한 팁을 전하며 아이들 무리 속으로 부모들이 뛰어 들어갔다. 영월의 작은 학교가 내어준 큰 운동장 안에서 부모들도 아이가 됐다.





농촌유학생 가족을 친가족 같은 마음으로
맞아주는 산술면 낙전3리 최상호 이장

농촌유학의 든든한 조력자들

“농촌유학 시작한 영월... 다시 찾고 싶은 제2의 고향 될 것!”

낙전초등학교가 자리한 산술면에는 농촌유학생과 학부모를 영월 사람들이 이어주는 조력자들이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농촌유학 가족들이 편히 머물 수 있게 살피는 낙전3리 최상호(62) 이장, 유학생과 재학생 학부모 간 만남의 자리인 '영월투어'를 기획·추진하는 양승우(68) 산술지역교육협의회 회장이다. 이들은 각자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월에 온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대 중이다.

“마을 찾은 손님들께 잊지 못할 추억 남길 것”

최상호 낙전3리 이장

전통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

산술면에 자리한 낙전3리(이하 삼국마을)는 아직도 물이 맑아 바위틈 속에 가재가 살고, 여름 장마가 끝날 무렵에는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 청정지역이다. 예로부터 버드나무가 많다고 해서 버들 ‘유(柳)’자와 밭 ‘전(田)’자를 써서 유전리로 불렸다. 60여 가구 120여 명 주민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이곳은 계곡 따라 마을이 점점이 형성되어서인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다. 이 조용한 마을이 떠들썩해지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매년 10월 삼국축제를 열 때와 삼국체험을 하겠다고 체험객들이 찾아올 때다.

“삼국은 삼베옷의 원료인 대마(大麻) 껍질을 익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마에서 쉽게 섬유를 채취할 수 있도록 수증기로 찌는 공정인데요. 일명 ‘삼찌기’라고도 하죠. 땅에 구덩이를 파서 나무를 넣고 돌을 데워 물을 부으면 연도(煙道)를 통해 고온의 수증기가 흐르며 대마를 찌냅니다. 요즘은 대마 대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달걀 등 여러 식재료를 넣어 음식을 익혀 먹죠. 옛 전통방식을 살린 삼국체험을 하러 사람들이 마을에 오면 맛있게 찌낸 음식들을 같이 먹으며 정을 나눕니다.”

최상호 이장은 지난 10월 8일,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삼국축제를 열었다며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 사람들과 고유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마을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삼국축제가 벌어지는 잔디마당 한쪽에 자리한 삼국체험관이 바로 농촌유학생 가족이 머무는 숙소다. 삼국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화마을이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산촌생태마을이기도하다. 2015년 조성한 삼국체험관은 사람들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는 숙소로 낙전초에 다니는 농촌유학생 가족 6가구 중 4가구가 머물고 있다. 샤워시설부터 화장실, 주방시설, 에어컨이 갖춰져 있고 너른 잔디마당을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삼국체험관 바로 맞은편 마을사무실로 출근하는 손명자(65) 사무장도 유학생 가족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오며 가며 살뜰히 챙긴다.

“마을 분들이 정이 많아서 밭에서 딴 농산물을 숙소 앞에 놓고 가요. 마음의 표현인 거죠. 평일엔 제가, 주말엔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가 상주해 있고, 주기적으로 면사무소와 산술파출소, 119안전센터의 기관장들이 치안과 안전을 위해 상시 점검합니다.”

손명자 사무장은 숙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동 사용공간을 틈틈이 관리하고 자갈한 수리나 고장 사항도 바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의 고향으로 남길

산술면사무소에서 농촌유학 가족이 생활할 주거시설 확보에 나섰을 때, 누구보다 적극적

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산솔면 12개 마을의 이장들이었다. 이장협의회 회원들은 각 마을의 빈집, 펜션, 마을회관 등 주거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산솔면에는 현재 삼굿체험관을 비롯해 녹전2리 산솔마을 힐링체험관과 녹전4리 펜션을 농촌유학 가족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최상호 이장은 숙소 탐방을 하러 유학생 가족들이 마을을 찾아왔을 때 몇 가지 걱정이 있었다. 나름대로 잘 준비한 숙소를 사람들이 좋아할지, 도시 살던 사람들이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낯선 시골마을에 와서 잘 적응할지 걱정이었다. 농촌유학 석 달이 지난 지금, 최상호 이장은 괜한 걱정이었다고 말한다.

“숙소 열 개곡에 나가 아이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잠자리도 잡고, 마을 안에서 편히 지내시는 것 같아 이장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농촌유학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유학생 가족들이 주민들을 만나면 낯가리지 않고 먼저 살갑게 인사해주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합니다.”

산솔면에는 농촌유학생과 학부모, 그들과 동반한 유치원생 자녀까지 포함해 총 21명이 전입신고를 했다. 초등학생이 5명뿐이던 작은 산골마을에 젊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웃음과 활기가 넘치고 있다.

“삼굿마을이 제 고향이에요. 오랜 객지 생활을 접고 약 5년 전에 고향마을로 돌아왔는데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농촌유학생 가족들에게도 삼굿마을이 평생 잊지 못할 제2의 고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을 찾아주신 귀한 손님들이 편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살뜰히 챙겨야죠.”



양승우 회장은 영월에 오시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대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월투어 통해 학부모 간 만남의 자리 마련”

양승우 산솔지역교육협의회 회장

지역발전 위한 남다른 생각

양승우씨의 이름 뒤에는 많은 수식이 따라다닌다. 2022년 발족한 산솔지역교육협의회 회장, 녹전초등학교운영위원장, 꽃을 매개로 꽃차 판매와 체험, 교육 등을 펼치며 꽃으로 소통하는 사회적기업 화이통(花而通)협동조합 대표 등이다.

35년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는 2013년 명예퇴직 후 더 바빠졌다. 반평생 넘는 세월 동안 국가에 봉사하며 살았기에 이후의 삶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자고 생각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보자 마음먹었다. 지난해 산솔면 교육 관련 단체와 주민대표들이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산솔지역교육협의회(이하 산솔교육협의회)’를 발족했을 때도 적극 힘을 보탰다.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녹전초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각 학교



녹전초 학생들이 농촌체험학습을 위해 꽃농장을 찾았다.



영월투어 중인 녹전초 유학생, 재학생 학부모들이
장릉에 들러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장, 총동문회장, 지역아동센터장, 이장협의회장 등이 뜻을 모았다.

다행히 올 2학기에 녹전초등학교에 농촌유학생이 오면서 일시적이긴 하나 학생 수도 늘고 마을 주민도 느끼는 기분 좋은 변화가 생겼다. 그 누구보다 학교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양승우 회장은 유학생 학부모와 재학생 학부모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렇게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 바로 '영월투어'였다.

"애들은 농촌유학을 와서 학교에 가고 방과후수업도 받고 자기들 스케줄 따라 움직이기 바쁘지만 엄마들은 아는 사람도 없는 영월에서 뭘 할까? 생각했죠. 유학생 학부모끼리도 원래는 잘 모르는데 유학 와서 친해지는 중이고, 기존 재학생 학부모들과도 이렇다 할 친분이 없으니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스스럼없이 친해지는 방법으로 여행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것이 영월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승우 회장과 산술교육협의회 회원들은 직접 가이드가 되어 6~7시간 여행 코스를 짰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오후 3시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녹전초는 영월투어에 동행할 학부모를 모집해 주었다. 유학생 학부모 5명, 재학생 학부모 4명이 첫 영월투어에 함께 했다. 9월 15일 오전 9시 녹전초에 모인 학부모들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고, 투어 봉사자로 나선 산술교육협의회 회원들은 안팎으로 학부모들을 챙겼다.

영월로 향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길

이들은 관풍헌에 들러 창작 뮤지컬 '월기경춘(越妓瓊春)'을 감상하고 장릉, 청령포 등을 둘러봤다. 특히 장릉과 청령포에는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을 미리 예약해 이야기와 함께 하는 풍성한 여행을 제공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강사진박물관에 들러 전시도 보고, 박물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기도 나눴다. 영월투어가 더욱 특별했던 것은 농촌유학을 담당하고 물심양면 지원해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지원청, 영월군청 등에 방문해 담당자들과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다들 업무를 보는 중이라 오래 있지는 못하고 군청, 교육청 소개도 할 겸 잠깐 인사만 나눴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상으로 만났던 분들을 직접 보니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하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간 농촌유학 유치를 위해 애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학부모들도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직접 얼굴 보고 인사 나누면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월투어에 동행한 유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영월에 유학 와서 가족들과 가본 여행지이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자신들을 반겨주는 처음 와 본 것처럼 새롭게 느껴진다고 했다. 재학생 학부모들은 영월에 살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갈 오지 못했던 곳을 유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여행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승우 회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여행을 기획해주실 줄 몰랐다"며, "환대해주는 기분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 영월을 사랑하고, 지역 아이들을 사랑하는 양승우 회장은 화이통협동조합 조합원들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녹전초 전교생이 꽃농장을 찾아 메리골드를 직접 따서 천연염색을 하고, 밤을 주워 구워 먹고, 다래깡으로 샌드위치를 만들며 자연 속에서 한참을 노닐다 갔다.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영월에 잠깐 여행 온 관광객이든 영월에 살겠다고 온 귀농인, 귀촌인이든 영월에 오시는 분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환대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분들께 영월에 대한 좋은 추억을 심어주고 싶어요. 농촌유학 가족들이 유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을 때 영월이 자꾸 생각나고,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어요. 영월로 향하는 마음들이 많아질 때 지역 소멸 위기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